

마라톤협상 끝에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새로운 국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30시간의 협상 끝에 재해위험경감에 대한 새로운 틀이 세계이 센다이 UN 세계재해경감회의에서 UN 187개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었다.



(Photo: Manny de Guzman)

**18 March 2015, SENDAI** – 오늘 187개 회원국 대표단들은 2015년 이후 개발의제의 첫 번째 주요 합의안을 채택하였다. (지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재해경감대책과, 7개 목표 및 4개 우선 조치사항)

일본 내무부장관이며, 회의의장인 에리코 야마타니 여사는 30시간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합의된 2015-2030 재해경감 센다이대책을 발표하였다.

마가레타 월스트롬 UNISDR대표 및 사무총장 특별대표는“새로운 재해경감 프레임워크의 채택은 지속가능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 명확한 목표와 우선조치사항의 윤곽을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해위험경감과 삶, 생계, 그리고 건강의 손실 경감을 이끌 것입니다” 라고 했다.

“향후 15년에 걸친 센다이 재해경감대책의 실천은 강한 집념과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되며 올 하반기에 있을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여건에 대한 향후 협정 달성에 중요할 것입니다. UN사무총장께서‘개막일 시점’이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지속가능함은 센다이에서 시작됩니다.”

프레임워크는 향후 15년간에 걸쳐 달성될 7개 세계목표의 윤곽을 그린다: 전세계 재난 사망률의 상

당한 감축, 재해피해자의 수 상당한 감축, 세계GDP 관련 경제손실의 감축, 주요 인프라 재해피해와 보건 및 교육 시설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 붕괴의 상당한 감축, 2020년까지 전국·지역 재해경감 대책을 갖춘 국가의 수 증가, 강화된 국제 협력, 다수의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재난위험정보 및 평가분석의 접근성 제고 등이 담겨있다.

야마타니 회의의장은 “일본의 재해경감공동체와의 특별한 관계는 이번 세계회의의 결과물에 의해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번 새로운 대책의 성공적 실천은 현존하는 재난위험 경감과 새로운 위험 발생 방지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 중앙위원회 공동의장 파이비(Päivi Kairamo) 핀란드 대사는“각국 대표단들은 현재 효과 행동대책의 실천을 통해 얻은 경험을 침착하여, 위험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강화된 재해 관리 및 더 많은 투자에 집중한 4개 우선조치사항에 동의하였습니다.”

“최종 우선순위는 좀 더 효과적인 재난대비와 복구, 복원, 재건설할 때 ‘다시 더 잘 만들자’원칙을 내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향후 15년간 DRR 나침반의 4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공동의장 타니(Thani Thongphakdi) 태국대사는 “향후 15년간 재해경감을 지도할 프레임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일 동안 함께 노력하신 모든 이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세계회의는 187개국 2,800명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6,500명이 참가하였고, 공개포럼에는 회의 5일 동안 143,000명이 방문하였고 일본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UN 모임의 하나가 되었다.

Date: 18 Mar 2015

Sources: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ISDR)